

어선사고 관련 수색, 구조 및 지원상황,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챙겨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어선사고 관련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 개최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14일(목) 15시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종합상황실에서 행안부, 국방부, 외교부, 해경 및 관련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발생한 어선사고 관련 수색·구조와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지원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3월 9일(토) 06시 43분경 경남 통영 옥지도 남방 37해리 해상에서 근해연승어선 ‘제2해신호’가 전복되었고, 3월 14일(목) 04시 15분경 인근 해역인 통영시 해상에서 쌍끌이대형저인망어선 ‘제102해진호’가 침몰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해 실종자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인명구조와 수색, 그리고 가족지원에 만전을 다해 주기 바란다.” 라고 당부하고, “어선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고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대책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인명을 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조업현장에서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주기 바란다.” 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강 장관은 3월 15일(금) 통영 어선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고 실종자 수색·구조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 관	책임자	과 장	윤상훈 (044-200-5550)
	어선안전정책 과	담당자	서기관	손외학 (044-200-5526)